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의지 재확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서 5·18과 촛불 정신 계승 천명
"헬기사격·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
"5·18정신 헌법전문에… '임 행진곡' 제창으로 갈등 끝내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적폐(積弊) 청산'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 정부의 뿌리를 5·18정신과 촛불집회에서 찾으며 과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정부 주관 공식행사에서 5·18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잘못된 역사와 그로 비롯된 산물을 바로잡겠다는 적폐청산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새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고,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헬기 발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헬기사격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 장착된 기관총으로 전일빌딩내 시민군을 향해 난사한 사건을 말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7년 만에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총탄 흔적으로 신군부의 헬기사격이 세상에 드러났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를 토대로 계엄군에 의해 헬기를 동원한 사격이 이뤄졌다는 것만 밝혀졌을 뿐,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5·18민주화운동정신을 헌법에 담아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다.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통해 과거 정부에서 반복됐던 갈등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8년까지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부가 일어서서 부르는 '제창'으로 불렸다가 합창단의 식전 행사로 바뀌면서 참석자 중 희망자만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바뀌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시스

유가족 위로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추모사를 하다 눈물을 흘린 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감찰 앞두고 사의

문재인 대통령 감찰지시 하루만에… "성실히 임할 것"
지난달 21일 저녁 자리서 '격려금' 서로 주고 받아
법무부 "감찰 그대로 진행…사의 수리 안 할 듯"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2대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시에 감찰을 받고 퇴진하게 된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오전 8시23분께 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감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 국장도 같은 날 오전 8시42분께 "이번 사건에 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을 비롯한 수사팀 관계자 7명 등은 안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이 날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이 자리에서 안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받은 격려금을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했다.

이후 각계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에 수사책임자와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의 검찰국장이 만찬을 갖고 격려금을 주고 받았다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one of them)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판은 사드라들지 않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신속히 감찰 계획을 수립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무부 감찰위관실은 안 국장,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지검장을 각각 감찰하고,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 출처와 배경을 감찰의 주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이들에 대한 감찰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감찰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게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뜻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민주당 도당, 대선 공약 이행 위한 지역순회 나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2일부터 대선 공약이행을 위한 지역 순회에 나선다.

이번 순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전북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공약한 만큼 지역민에게 이행 의지를 전달하고 정부에 이를 건의하기 위해서다.

그 첫 시작으로 22일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문동신 군산시장을 만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김제, 정읍, 남원 등 지역 상황에 맞춰 도내 각 지자체를 방문해 정부에 전달할 주요 지역 현안을 논의한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와 최근 전화통화 해서 당정간 협력을 약속받았다"면서 "최대한 빨리 지역을 찾아 실질적으로 현안을 챙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새로운 정치열망과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 달라는 염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64.84%라는 전국 최고 지지율을 보냈다. /안재용 기자

시도의장협,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결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광주시의회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특히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는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황 의장은 이날 "새정부 출범 후 단일 종목 가운데 세계적인 규모로 처음 열리는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내달 24일부터 7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전 세계 170개국 1,9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6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회"라며 "태권도를 더 많은 나라에 보급하고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 종목으로 발전시켜 우리문화를 알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될 대회"라고 강조했다.

황 의장은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려 태권도가 세계적인 무예 스포츠로 도약하고 무주 태권도원이 태권도의 성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태권도 진흥 지원 대책과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재용 기자

도의회 문건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8일 도내 어르신들의 화합 한마당 잔치인 '전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응원했다.

전북도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14개 시.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비롯한 그라운드골프 등 민속종목까지 모두 9개 종목에 장수군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이날 위원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발전한다고 해도,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뒤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신 어르신들께서 우리사회의 원로로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른의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 나이가 드실수록 체력증진과 활기찬 삶을 위해 스스로 즐겁게 운동하는 것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당부하며, 전라북도의회도 어르신 모두가 여생을 건강하고 보람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안재용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 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